

存在學의 概念

-形而上學 批評 試論-②

金基錫

思惟는 存在에서 나혀진다. 이 存在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아득한 옛날에 있어서 벌써 이 存在란 것을 생각해 보았다. 人間의 思惟의 歷史는 存在에 대한 人間의 思惟의 歷史에서 出發한다. 사람들은 자기 周圍에 있는 만흔 存在에 부닥키면서 그 만흔 形相과 그 만흔 質料에 놀래여 『생각하는 갈대』로서의 첫 번 몸을 떠러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흙 한줌 풀 한 포기에서 자기들로서 헤아릴 길이 업는 기피모를 深淵을 보았던 것이다. 人間의 思惟가 자기로서 힘이 미치는 廣大한 存在의 世界 속에서 그 실머리를 끌러야하게 된 것은 人間 및 人間의 思惟에 있어서 한 개의 宿命이 아니면 안된다.

存在에서 出發한 人間의 思惟는 存在란 것을 어느 程度까지 理解하기 전에 存在의 根源을 생각한다는 이름 미테서 었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잇섯다. 存在를 存在 그 자신의 性格에서 理解하려고 하지 안코 전연 存在를 떠나 存在의 背後에 었던 『하나』를 想定하여 그 었던 『하나』로부터 存在가 왔고 그 었던 『하나』에서 存在가 헤여진다고 가르친다. 그리하여 그들은 存在를 存在로부터 理解하는 存在論에서 存在를 그 背後에 잇는 것으로부터 說明하는 存在論에 올머가고 말엇다. 形而上學이란 이 存在를 그 背後에 잇는 것으로부터 說明하는 存在論에 지나지 안는다.

存在를 생각하는 人間의 思惟가 存在 根源을 찾는 자리에 드러선 것은 조흔 일이다. 그러나 存在의 根源을 차즘은 存在의 진실한 『얼굴』을 보기 위함 이요, 存在의 근본 『얼굴』을 차즘은 人間의 思惟가 그 자신의 故鄉인 眞實한 實在의 世界에 도라가기 위함이니 存在를 바로 생각하는 자리에서 우리들은 어데까지던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純粹한 한 개의 原本的인 事實에서부터 생각하여 나아가지 안혀서는 안된다.

人間이 存在 속에 잇다. 우리들의 周圍에는 만흔 存在가 들러잇다. 그리하

야 人間조차 에워싼 아득한 存在의 世界가 우리들의 思惟에 주어진다. 우리들은 이 가장 自明한 事實 맞게 아는 것이 업나니 存在에대한 우리들의 思惟는 이 한 개의 自明한 事實에서부터 떠나는 것 맞게 다른 길이 엮는 것이다. 存在의 背後에 었던 『하나』를 想定함은 이 原本事實을 이저버린 흔들리는 假定이니 이 原本事實이 아닌 흔들리는 假定에서부터 우리들의 存在에대한 思惟가 出發해서는 안된다.

觀念論과 唯物論

事實에서 出發하지 아니하고 假定에서 出發한 人間의 存在에대한 思惟가 무엇을 저글러 노앗는가를 우리들은 보아보기로 한다.

存在의 背後에 精神이란 것을 想定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이 精神이란 것이 모든 存在를 나허노코 그것을 기르는 存在의 眞實한 根源이라고 가르친다. 이 精神이란 무엇인가? 처음부터 存在의 根源으로 가져온 것이매 모든 存在의 뒤에 그리고 모든 存在의 우에 잇는 었던 理念이 아니면 안된다. 時間을 끈코 時間을 넘어서서 時間에 붓잡히지 아니하고 久遠한 빛과 生命을 발하는 었던 理念이 아니면 안된다.

사람들은 이 精神이란 것을 말하야 온지 오래다. 이 精神이란 것을 모든 存在의 根源인 眞實한 實在로 생각하야 온지 오래다. 그러나 人間의 思惟가 그러케도 오랫동안 어루만져 온 이 精神이란 것이 오늘에 이르러 오히려 더우 잡을 길이 엮는 안개 속엿 물건으로 남겨잇지 안흔가? 이 精神이란 것은 時間에 붓잡히지 안는 것을 그 자신의 빛나는 性格으로 한다. 모든 存在가 時間에 잇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었더케 하야서 이 時間을 넘어서는 한 개의 □□한 存在를 存在의 根源으로 생각하게 되앗을가?